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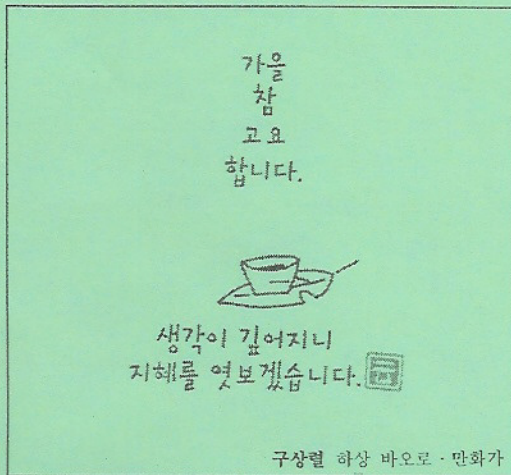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27주일(목주기도 성월)
제28권 45호(가해) 2008 · 10 · 5

[묵상]



□ 네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길을 가다가 불현듯
가슴에 잉잉하게 차오르는 사람
네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너를 향한 기다림이 불이 되는 날
나는 다시 바람으로 떠올라
그 불 다 사그러질 때까지
스스로 잠드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떠오르는 법을 익혔다.
네가 태양으로 떠오르는 아침이면
나는 원목으로 언덕 위에 쓰러져
따스한 햇빛을 덮고 누웠고
누군가 내 이름을 호명하는 밤이면
나는 너에게로 가까이 가기 위하여
빗장 밖으로 사다리를 내렸다.
달빛 아래서나 가로수 밑에서
불쑥불쑥 다가왔다가
이내 허공중에 흩어지는 너,
네가 그리우면 나는 또 울 것이다.

◆ 시인, 김정희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애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에	오후 2:00 중 강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중 강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떼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최효선 안젤라, 배일호 헨리, 배관호 (생)최석원 안드레아와 엘리사벳, 신범화, 조지 가보라, 봉효운 솔리나, 이태호 바오로, 정다현, 민슬기 로사리아, 김기석 바오로, 오가을 안젤라
주 일 낮 미사	(연)정진표, 이현호 요한, 최복덕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이영자 마리아, 윤희경 라파엘, 김정재 안젤라, 김기은 요한, 이순 말지나, 유태희 루시아, 김시형 시릴로, 황만근 베드로, 김진수 미카엘, 엄은섭 도로테오, 이정기 클레멘스 (생)장정숙 크리스티나, 권순봉 요안나, 이중민 요셉, 이중원 베드로와 아네스 가정, 이석재 베드로 가정, 이영희 카타리나, 최석원 안드레아와 엘리사벳, 김은영 젬마, 권진열 피데스와 리디아 가정, 이윤조 글라라, 구마리아네 수녀님,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 (Isaiah) 5,1-7
화답송	○야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가문이로다. ○당신은 에집트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이방인을 내쫓으시고 심어주셨나이다. 그 가지들 바다까지 뻗어있었고, 돌아난 그 줄기 강까지 뻗었었다.○ ○당신은 어찌하여 그 울타리를 부수시어, 길가는 사람마다 따먹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도야지가 휩쓸게 하시고, 들짐승이 먹어내게 하시나이까.○ ○만군의 주 하느님, 돌아오소서. 하늘로서 굽어보사 살피주소서. 비오니 포도밭을 찾아 오소서. 지켜주소서. 당신의 오른손이 심어주신 줄기를, 당신위해 실히 해주신 그가지를.○ ○다시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오리니, 우리를 살려주소서. 당신이름 기리오리다. 만군의 주 하느님, 우리 힘을 도로 주시고, 부드러운 얼굴을 보여주소서. 우리가 당장 살아나리다.○
제 2독서	필리피서 (Philippians) 4,6-9
복음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복음	마태오 (Matthew) 21,33-43
영성체송	주님을 바라는 이에게, 주님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은 분이시로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99	319
봉헌	382	255,239
성체	287	281,298
파견	351	195

19. 천교에 봉사하는 성사 - 성품성사와 혼인성사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많은 갈림길이 있다. 우리는 이 갈림길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느끼면서 어느 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의 길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거기에는 하느님의 뜻과 섭리가 작용함을 우리는 믿는다. 이것을 일컬어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 즉 성소(聖召, vocation)라 한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불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모양의 삶을 영위하든 그 삶이 하느님과 이웃의 천교에 봉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사제성소, 수도성소, 결혼성소)

☞ “내가 갈 때까지 성경 봉독과 권고와 가르침에 열중하십시오. 그대가 지닌 은사, 곧 원로단의 안수와 예언을 통하여 그대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더욱 나아지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일을 지속해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대는 그대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이들도 구원할 것입니다.”(1티모 4,13-16)

☞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읽어 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오’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마태 19,4-6)

성품성사와 혼인성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봉사하는 성사이다. 이 성사들을 받는 이들은 그 고유한 사명으로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봉사하게 된다. 성품성사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 백성의 목자로 축성되는 것이다. 한편 혼인성사를 통하여 신자들의 혼인이 사랑과 일치와 반석 위에 견고하게 되고, 신자 부부는 혼인성사 생활을 통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의 구원에 봉사하게 된다.

▶ 성품성사의 의미와 효과

성품성사는 하느님과 세상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을 서품(敍品)하고 그들에게 직무를 수여하는 예식이다. 세례성사를 받은 모든 신자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신자들의 **보편 사제직**)한다. 이 보편 사제직을 바탕으로,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도록 서품된 사람들은 고유한 직무로서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직무 사제직**)한다. 성품성사 예식은 주교의 안수와 장엄한 축성 기도로 거행되는데, 이는 서품된 사람들에게 그 직무에 필요한 성령의 은총을 내려 주시도록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다. 성품성사는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은 남자에게 주교가 베풀며, 성품성사를 받은 사제에게는 영적 표시인 인호가 새겨지기 때문에 평생에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계속 - CBCK 제공)

죽음을 부르는 욕심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에는 끔찍한 폭력과 죽음의 이어집니다. 포도밭 임자가 포도 철이 가까워지자 소작인들로부터 소출을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냅니다. 소작인들은 소출을 내기는커녕 종들을 붙잡아 매질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내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합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포도밭을 차지하기 위해, 상속자인 아들마저 죽입니다.

비유에서 포도밭을 차지하려는 소작인들의 욕심은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죽이게 합니다. 욕심이 죽음을 불러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소작인들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 것도 그들의 욕심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느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들의 욕심이 인류를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고 죽음의 운명에 처하게 합니다.

창세기에 이어 나오는 카인의 이야기도 욕심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자신의 제물은 외면당하고 동생 아벨의 제물이 하느님께 받아들여지자, 카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카인의 시기와 욕심이 죽음을 불렀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카인의 이야기는 인간이 지닌 욕심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인류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그들의 피가 우리에게도 흐릅니다.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느님을 배반하게 되고, 카인처럼 자신의 가장 가까운 혈육마저도 죽이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비유에 나오는 포도밭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

전으로 묵상해 봅시다. 많은 사람이 나의 포도밭에, 곧 나의 삶 안에 들어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 가까운 이웃, 성당의 형제자매, 직장 동료, 그리고 내가 발길을 옮기는 삶의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빌리자면, 주인이 포도밭에 보낸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다름 아닌 하느님이시고, 종들은 하느님께서 나의 삶의 터전에 보낸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포도밭 소작인들처럼 하느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폭력과 죽음으로 맞아들이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삶의 포도밭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환대하기 보다는 그들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들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칭찬하기보다 헐뜯고, 인정하기보다 시기하고, 자랑으로 삼기보다 무시하기도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거절하고 내치는 많은 경우는 나 자신만의 포도밭을 차지하려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그리하여 포도밭에 침범하는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무장된 욕망의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죽음과 같은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비유에서처럼 하느님께서는 나의 삶의 포도밭에 당신의 종들과 아들을 보내십니다. 소작인들은 포도밭을 자신들이 차지하려는 욕심에 눈이 멀어, 포도밭을 찾아온 이들을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나의 삶을 나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채우려 하면, 나의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이들을 해치게 됩니다. 내 인생의 터전에 찾아오는 이들을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 배척하면 나의 삶이 처참해지지만, 하느님께서 보낸 사람으로 환대하여 맞아들이면 나의 삶이 구원으로 이끌어집니다.

◆김영춘 베드로 신부<평화방송·평화신문 주간>

이번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정미영 미카엘라	신중철 아브라함	해설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신덕례 데레사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이태호 바오로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폴	제1독서자	강정현 시몬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김정은 젼마	서용숙 에스텔	박희자 마리아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김금자 데레사	권순길 세실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3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5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10월

목주기도 성월

기도 시간은 짧아지고 묵상이 부족한 이 시대에 목주기도는 참으로 필요합니다. 목주기도는 그리스도의 구원신비에 참여하는 기도입니다. 10월 목주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성모님과 함께 나 자신은 물론 우리 가정과 본당의 성화를 위해 목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한국의 날 장터 음식부스 결산

제38회 한국의 날 장터 음식부스 행사가 봉사자들(대건회, 각 신심단체, 소공동체)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성료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삼위 성당내 어린이 놀이터 설치 기금마련을 위한 이번 행사의 결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수입 : \$29,284.00
- 총지출 : \$14,158.27(장터부스 대여비, 식재료비 등)
- 순이익 : \$15,125.73

* 대건회에서 10월12일(주일) 낮미사 후 전신자에게 메추리 구이 등 뒷풀이 메뉴를 대접합니다.

◆ 고 김진수 미카엘 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연도

- 일시 : 오늘 주일(5일) 낮 미사 후 오후 1시15분
- 글로리아 성가대 반주자 김정화 소화 데레사 자매의 부친 김진수 미카엘님(72세)이 9월29일 한국에서 선종하셨습니다.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 디지털 카메라 사진 특강

- 일시 : 오늘 주일(5일) 오후 2시, 회의실
- 대상 : 디지털 카메라에 흥미가 있으나 자세한 작동법을 모르는 초보자, 사진을 좀 더 잘 찍기를 원하는 교우들. ☎(949)502-1213 이안드레아 홍보부장

◆ 백삼위 신심단체 가입 안내

10월은 신심단체 활성화 및 회원 가입 확대의 달입니다. 아직 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참여하여 본당 발전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열심히

◆ 주일학교(Sunday School) 소식 ◆

◆ 오픈 하우스

- 일시 : 오늘 주일(5일), 오전 9시30분~10시30분, 강당
- 수업참관 가능 : 오전 10시45분~11시, 각 교실
- 2학년 첫영성체 교리반 학부모님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Lock-in

- 일시 : 10월10일(금) 오후 7시30분~11일(토) 오전 9시
- 주제 : 그리스도안에서의 변화(Transformation in Christ)
- 대상 : 7학년~12학년(주일학교 학생이 아니어도 환영)
- 준비물 : 목주, 필기도구, 세면도구, 슬리퍼백
- 회비 : 없음
- 등록 : 오늘 주일(5일)까지 각 담임선생님 / 성당 사무실
- Release Form 제출 필수(자녀편에 배부한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하고 활동하는 사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 일 정 : 매월 첫째주일에 계속 시행
- ☎ 종교교육분과 최재은 베드로 위원장 (310)694-4585

◆ 본당 신부님 동부 출장

본당 신부님이 10월6일(월)~10일(금)까지 뉴저지로 출장 가십니다. 이 주간 평일미사는 손님 신부님이 집전하십니다.

◆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총원장 수녀님 방문

- 본당 구 마리아네 수녀님이 소속된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총원장이신 진 프란치스카 수녀님과 본원장 김 사무엘 수녀님이 북미주 사도직 방문 중 우리 백삼위 성당에 10월8일(수)~11일(토)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바오로 서간'개강 안내

- 수요일 : 10월15일 오전 10시, 회의실
- 금요일 : 10월17일 오전 9시30분, 강당
- * 신청 : 황지영 안젤라 ☎(310)938-8089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0월5일(주일) : 청소년분과 (장터국수 \$3)
- 10월12일(주일) : 대건회 (전신자와 나눔의 자리)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고천용	구자운	김원호	김재영	김태호
	모은기	민찬기	박광자	박음전	박정자	박종열
	박진수	서성용	안태갑	오세원	우영주	유선식
	유태현	이병우	이상규	이석진	이재정	임한나
	정상문	최현영	하정화	홍숙자	신영웨버	
						합계 : \$2,350
미사헌금 : \$2,908						

성전헌금	강순복	고천용	구자운	김원호	김재영	모은기
	민찬기	박광자	박정자	박종열	박진수	서성용
	안태갑	오세원	우영주	유선식	이병우	이상규
	임한나	하정화	홍숙자			
	합계 : \$1,584.29					
	감사헌금 : 유지숙					

공지 사항

◆수요 예비자 교리반(2009년 부활반) 모집

목요 성탄반에 이어 내년 부활절 세례를 준비하는 새 신자를 모집합니다. 주변에 아직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이웃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 환영식 : 10월19일(주일) 11시 미사 중
- 교리시작 : 10월22일(수) 오후 8시10분, 2층 교리실
- 신청 : 사무실에 비치된 소정양식 작성

◆ 장례절차에 관한 세미나

- 일시 : 10월19일(주일) 오후 1시 강당
- 내용 : 장례 준비 및 절차, 묘지와 관련된 보험 안내 등
- 문의 : 사회복지분과 박홍룡 요셉 위원장 ☎ 283-5879

◆ 요셉회/안나회 가을 온천관광

- 때,곳 : 10월28일(화),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 55명 정원, ● 회비 : 교우 \$15, 외부인 \$25
- 신청 : 이영희 카타리나 회장 ☎(310)518-1736
권영옥 루치아 총무 ☎(310)720-2876

남가주 소식

◆ 성 아그네스 한인 천주교회 40주년 기념 한마당 잔치

- 일시 : 10월12일(주일) 오전 10시
- 장소 : 성 아그네스 성당 마당(1451 Dana St. LA, CA 90007) ☎(323)731-4433

◆ 파티마 성모님 발현 91주년 기념행사

- 일시 : 10월13일(월) 오후 7시
- 장소 : LA 성 바실 성당
- 주례 : 김재섭 요한 마리아비안네 신부
- 주최 : 파티마 세계사도직(푸른군대) 서부평의회

◆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발현 성지 순례

- 출발 : 매월 셋째주 목~일(3박4일)
- 경비 : \$950(LA 출발 기준. 항공료에 따라 변동가능)
- 후원 : 가톨릭신문사, 주관 : 투어월드 ☎(213)385-0043

◆ 제 27회 남가주 한인천주교회 추수감사절 합동미사

- 일시 : 11월27일(목) 오전 10시~오후 3시30분
- 장소 : Eldorado East Regional Park (Garden Grove Area)
- 주례 : 로저 마호니 추기경
- 주제 :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 미사 후 행사 : 가장행렬, 줄다리기 등 각 분당 참여
- 준비위원회 : 성엘리사벳 한인천주교회 ☎(949)725-9348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시, 강당
-----------	-----------

다음 주 단체 모임

각 단체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김수산나 (949)679-4321 10/17(금) 오후 7시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3	한길선레 스펠라스티카 782-1025	문지숙 엘리사벳 375-8712 10/10(금) 오후 8시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티리아 782-8549	1	박정애 데레사 618-8499	박정애 소화데레사 618-8499 10/11(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톤 619-7763	이크리스 아가톤 619-7763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김현정 헬레나 543-4593 10/7(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최경숙 수산나 320-0855 10/17(금) 오후 7시30분
	2	박희자 마리아 325-6982	김파센시아 892-9651 10/15(수) 오전 10시30분
	3	강은진 켈마 214-2290	강은진 켈마 214-2290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박정희 마리아 715-2609 10/10(금) 오후 7시, 성당
	3	대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2	정정숙 율리아 365-4721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최기남 야고보 569-3910 10/11(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755-4899 10/7(화) 오후 3시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송종두 요한 544-1267 10/10(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관기 라파엘 541-3687 10/11(토) 오후 6시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10/10(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이수산나 265-0495 10/16(목) 오전 10시, 성당

◎ 10월 목주기도 성월과 성모신심 ◎

10월은 교회가 정한 목주기도 성월이다. 교회는 특히 이 달에 신자 개인은 물론, 가정, 사회, 나아가 국가와 세계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 목주기도를 열심히 바칠 것을 권장한다. 모든 신자는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온 목주기도를 바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원신비를 묵상하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합당하게 살 것을 다짐한다. 목주기도는 ‘로사리오’, 또는 ‘매괴신공’으로도 불리며, 이는 각각 라틴어와 중국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장미꽃다발’을 의미한다.

목주기도가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박해시대에 콜로세움에 끌려간 신자들은 사자의 먹이가 되기 전에 ‘하느님을 뵙고 그분께 자신을 바친다.’는 뜻으로 장미꽃으로 엮은 관을 만들어 머리에 썼다. 이는 순교자들이 하느님을 뵙고 자신을 바치는 데 갖추어야 할 합당한 예모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살아남은 신자들은 순교자들이 썼던 장미꽃 관을 모아놓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바쳤고, 이후 교회 안에 기도대신 장미꽃을 봉헌하는 관습이 생겼다. 목주기도를 드리는 도구로서의 ‘목주’는 초기 교회의 은수자들에게서 유래한다. 4세기 이후 이집트 사막의 은수자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 시편 150편을 기도하였는데, 그들은 작은 돌멩이나 구슬, 콩 같은 것을 등글게 엮어 하나씩 굴리며 기도의 횟수를 세었다고 한다. 나중에는 글을 모르는 신자들은 시편대신 주님의 기도나 성모송을 바치기도 했다. 특히 도미니코(1170-1221) 성인이 당시 이단에 맞서 선교를 하는데 발생하는 어려움을 성모님께 호소하자 성모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목주를 주시면서 목주기도를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것을 일러주셨다고 한다. 이때부터 목주기도는 지금의 방식을 갖추게 된다.

교황 비오 5세는 그리스도인과 이슬람 간에 벌어진 레판토 해전(1571년 10월 7일)에서 목주기도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10월 7일을 목주기도의 날로 정했다. 그러다가 1830년 이후 세계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목주기도를 열심히 바칠 것을 당부하는 성모 마리아 발현 사건이 프랑스 파리(1830년), 라 살레트(1846), 루르드(1858년)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하자 목주기도 신심은 전 세계로 확산됐다. 이에 교황 레오 13세는 1883년 9월 1일 회칙 「최고의 사도직무」를 발표하여 10월을 목주기도 성월로 설정했다. 1858년 루르드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은 베르나데트와 함께 목주기도를 바치셨으며, 특히 세계 제1차 대전 중 1917년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은 자신을 ‘로사리오의 여왕’이라 밝히시고, 나이 어린 루치아, 프란치스코, 히야친타에게 “전쟁의 종식과 세계평화를 위해 매일 목주기도를 바쳐라.”고 지시하셨다. 교황 비오 11세는 1937년 회칙을 통하여 마음의 평화와 국가의 평화를 위하여 매일 저녁 함께 모여 목주기도를 바칠 것을 권고했다. 2002년 10월 1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동정 마리아의 로사리오」를 발표하여 기존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에 ‘빛의 신비’를 추가하였다. 이처럼 목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이며, 하느님의 인류구원 경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수난, 부활과 영광의 신비를 요약하는 기도이다. 목주기도는 단순히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구원송의 기도문을 반복하여 암송하는 차원을 넘어, 사람이 되시고 만인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관상하며 그 신비에 참여하는 기도이며, 이에 모범이 되신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기도이다. 목주기도 성월을 지내는 우리의 자세:

① 모든 이들이 죄와 악에서 벗어나 구원되기를 원하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현대사회와 인류가 시대적 오류와 편견, 전쟁과 분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죄와 허물부터 벗겨내는 내적 성숙과 쇠신을 이뤄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웃과 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선포해야 한다.

② 목주기도는 그리스도 신비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기도이기에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진정한 찬미는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는 실천이 함께 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을 조명한 ‘빛의 신비’(예수 세례, 가나 첫 기적, 하느님 나라 선포, 거룩한 변모, 성체성사 제정)에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한다.

③ 목주기도는 가정기도이자 가정을 위한 기도이다. 우리는 목주기도 성월에는 물론 연중으로 가족이 함께 모여 목주기도를 꾸준히 바침으로써 기도 안에서 가정문제들을 해결하고 참다운 가정공동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상대 마르코 신부